

2011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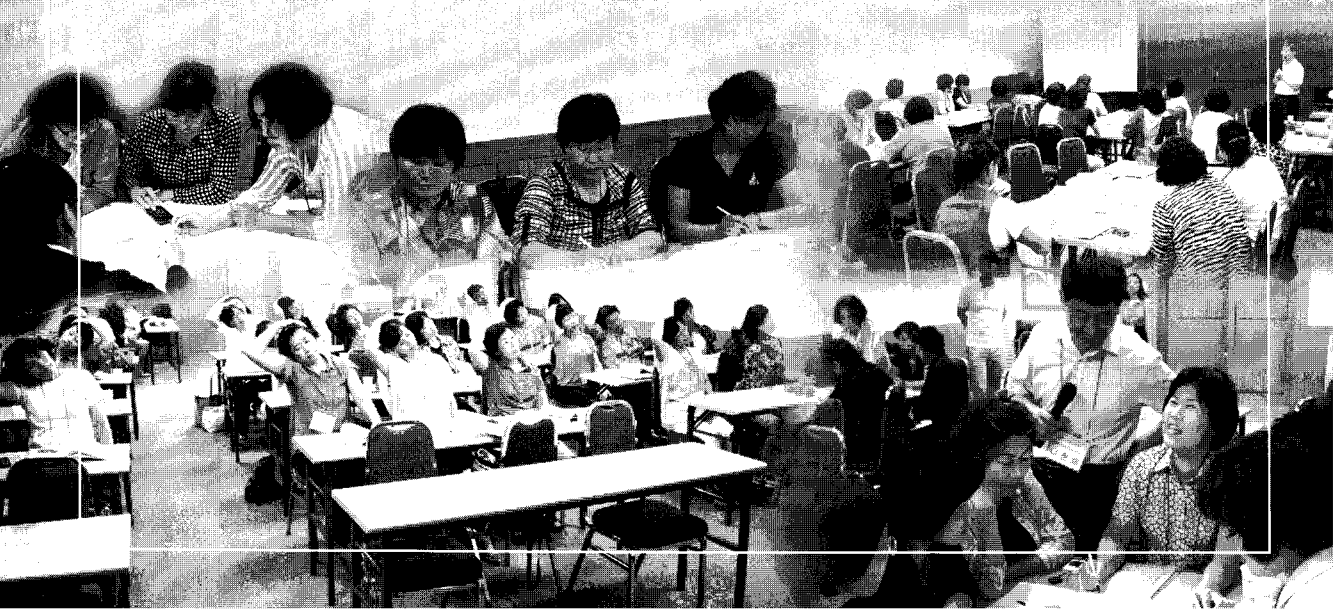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심화교육 수료식

일시 : 2011년 9월 2일 / 후원 : 사단법인 한국낙농우협회,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후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 교육 심화과정을 다녀와서



연간 순이익을 바꾸는 3박 4일의 투자

박 경 심 경기 여주군 늘푸른목장



- 시련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동장군 보다 더 매서운 구제역의 한파로 온 나라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빈 축사도 그냥 그대로 얼어버린채 시간

마저 멈췄습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빛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고 겨울은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봄바람은 어김없이 불어오고 가택연금이 풀리자 무서울 만큼 일을 하며, 새벽부터 밤중까지 쓸고 닦고 또 쓸고 닦고 그렇게 빈 축사를 끊임없이 오가며 일에 미쳐야 했습니다.

- 희망

다행히 10여년의 목장 경영을 하면서 그래도 신용은 잃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지인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목장은 송아지 울음소리가 노래 가락으로 들려옵니다. 감히 말로 표현 못할 감사한 마음을 지면으로나마 전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제는 기회를 붙잡으려 합니다.

한숨 돌려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도 높고 청명합니다. 살랑거리는 수단그라스 위로 뭉게구름이 무심히 흘러갑니다. 이제야 조용히 잠들어 있을 우리집 120여 마리 얼룩이들을 불러 봅니다. 작은 파이프 구멍 사이로 새근거리는 너



희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는데 진심으로 고마웠노라고……. 듣지 못할 안부를 전해봅니다.

내 인생의 40대를 함께하며 중년의 황금기를 열어 준 소중한 나의 친구들이여... 푸른 풀밭 아래 이제는 편안히 쉬려무나.

- 도전

제4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은 나에게 새로운 출발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변화’라는 모티브를 안고 목장으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경영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양관리는 남편이 잘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경영이라는 살림은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부끄럽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만큼 전문적인 경영에는 엉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목장경영과 가정경영은 분리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경계가 분명하지 못해서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어도 시작이 반이라고 무조건 무엇이든 기록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이 데이터가 될 순간들을 기약하며 오늘도 나는 서툰 경영일지를 작성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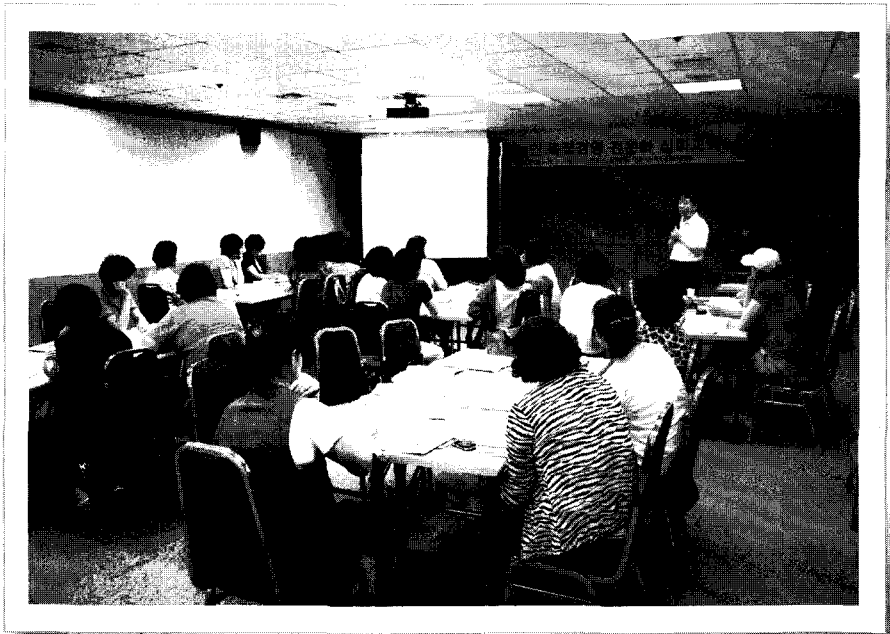
정확히 1년, 시련과 기회를 나누어 안으며 다시금 수안보로 출발합니다.

이번 교육은 심화과정이라 나름 기대도 되었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에 설레었습니다.

올 한해는 원유값 인상이라는 투쟁까지 겹쳐 온 낙농가가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야 했으므로 경영회계 분야에서 유사비를 산출할때는 힘든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여자장님들의 눈동자가 지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송아지사양관리나 전환기사양관리는 교육생들의 마음을 흠치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새롭게 다짐하며, 그렇게 3박 4일이 아쉽게 지나갑니다.

어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순이익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나의 인적 자산이





며 순이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흑, 아직도 이 교육이 생소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3
 박 4일의 투자로 연간 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 감사

다가서기에 서툰 박경심이지만 글로써 감사를 표합니다.

나의 노년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상영목장 4기 이영숙 회장님, 나도 내 얼굴
 에 책임 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친구
 처럼 스스럼없이 다가와준 부산 양은숙 언니, 이번 교육의 최고의 선물이었습
 니다. 옛날부터 알고 지낸 듯 친구가 되어버린 흥표목장의 김춘자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영암곽수정 동생,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신념으로 경영의 진수를 알게 해 준 조나단목장의
 양진선 언니, 많이 배우렵니다.

끝으로, 세상 밖으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나의 영원한 멘토이
 자 동지이며 친구인 남편 김영선 씨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



수안보에서 희망을 되찾다

전 미 자 충남 홍성군 은누리 목장



작년에 목장 전문화 4기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과 최악의 순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 말은, 그 당시 절실한 마음으로 교육을 듣던 나에게 너무나 와 닿았다. 소를 배불리 먹이기만 하면 우유를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는 생물체였고, 약하고 예민한 동물이었던 것을 잊고 있었다. 젖소를 쉽게 생각했던 내 잘못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나 최악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혹은 '최악' 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우리 목장에도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왔다.

처음, 사료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은 후에는 우유가 많이 나왔다. 우리 목장에 알맞은 컨설팅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에서는 컨설팅만 해 줄 뿐, 우리 목장의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컨설팅 업체의 작은 부주의는 소들의 사료 섭취량에 비해, 너무 적은 티엠알 섭취량을 가져왔고, 이는 소들의 영양 균형을 무너뜨렸다. 컨설팅 업체의 작은 부주의로 인한 작은 균열은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언제나 새벽에 두세번 이상은 목장을 둘러보며, 발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노력하며 수정을 많이 해도 감정은 나오지 않았고, 소와 우유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63두 발급삭제에 40두



넘게 봉대를 감았던 적도 있었다. 목장은 아주 엉망이 되어갔다. 나 또한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 병이란 병은 다 얻어서는 아들이 나보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란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날도 많았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나도 힘들지만 애들도 힘들어 하는걸 보면서 남편과 목장을 그만 둘 생각을 하던 중에 '경영전화 4기 모집'이란 글이 눈에 들어왔다. 목장을 그만 둘 생각도 했지만 어떻

게 이룬 건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끝낼 순 없단 생각에 전문화교육을 신청했다. 내 생각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 같다. 또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길을 걷고 있었을까 생각도 해본다. 아찔하기만 하다. 힘든 와중에 목장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고 해님과 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동아줄 잡듯 모든 것을 걸고 수안보로 떠났다. 수안보에서 총체적인 경영에 대한 것과 목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하는가 등의 돈 주고도 못살 금쪽같은 지식들을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목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나가기 시작하자 목장은 점차 안정되어갔다. 그렇게 수안보에서의 3박 4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렇게 수안보에서의 교육으로 인해 한차례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구제역이 터졌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구제역이 다른 지역만큼 심하게 퍼지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많은 지역이 구제역의 여파로 가축을 매몰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자 국가에서도 최후의 보루로 예방백신을 내놓았다. 살아남은 모든 농가는 예방백신을 맞아야 했지만, 구제역의 피해만큼 백신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만큼 백신을 놓는데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다행히 1차 백신을 사용했을 때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겼다. 그러나 2차 백신 후 많은 소의 유산과 조산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다. 유산한 소가 회복하여 수정을 들어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웠다. 번식이 감소하니 우유는 당연히 줄었다. 비록 살처분된 농가에 비해서는 다행이었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목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3차 백신을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남편과 많은 의논을 한 끝에 얼마 전 받은 교육에서, 소는 면역성이 강해야 백신회복에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종 첨가제며 생균제, 비타민 등 좋다는 건 다했다. 그리고 백신 하루 전에 오바론을 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공들인 것을 소도 알았는지 다행히도 3차 접종 결과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던 와중에 이번엔 ‘경영 심화’에 대해 배운다는 문자가 와서 너무도 기쁘게 신청했다. 심화라고 해서 약간의 부담을 안고 갔지만 정말 꼭 필요한 어린송아지 키우는 것, 전환기 관리, 유방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너무나도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고 또 많은 위안이 되었다. 마치 지난 10년 동안 못 웃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정말 행복했던 3박 4일이었다. 그동안 목장을 운영해왔던 시간에 비해선 수안보에서의 시간은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시간들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협회에 감사하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

위하나 전남 영암군 보림목장



어느덧 올해로 벌써 3년째...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교육에 같은 것을 왜 자주 받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복 교육만큼 효과가 좋은 것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교육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지는 정신을 재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은 심화교육이라 거의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봤었던 낯익은 얼굴로 더욱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날, 교육장에 도착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길고 무서웠던 구제역 이야기부터, 6월 시작된 낙농가 및 낙농육우협회분들의 원유값 인상을 놓고 벌인 힘들었던 투쟁이야기까지 모두 할 이야기가 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목장경영 분석을 통해 목장의 내실을 튼튼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히 들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교육을 받으며 내 몸이 건강해야 목장도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던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우리는 밤이 깊도록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둘째날,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까먹었던 교육 내용을 상기하고, 살짝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웠던 일들을 다시 되



짚어 보며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여성 낙농인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교육은 경영에 국한된 내용만이 아니라 구제역 예방 및 유방염 등에 대한 교육, 경제적인 송아지 및 육성우의 사양 관리법도 교육 받을 수 있어서 목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2탄으로, 낙농인이 아니라 여성



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메이크업 교육을 받으며 낙농이라는 힘든 일을 하지만, 나를 가꾸며 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좋았습니다.

셋째날, 그동안의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별 실습을 통해 각자의 목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내용도 실습해보고, 목장 경영장부 작성법도 배우는 시간을 통해 다시하번 실천의지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교육생 간의 인적 교류시간을 통해 교육내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이 되도록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1기 교육때부터 이야기 나왔었던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낙농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2011년 교육을 마치며 저는 이번 교육에서 가장 마음에 새기게 된 말은 여성분과위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든 이야기를 할 때 목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경영을 한다고 합니다.”라는 이 말씀에는 많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낙농가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목장경영을 하면, 분명히 대한민국 낙농에는 밝은 미래만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문 경영인으로 거듭나는 3박 4일

이 성 레 경기 파주시 경전목장



매정하리만큼 살을 애는 추위 속에 몰아닥친 구제역이란 보지도 못한 회오리 속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농작물이고 목축작물이고 모두가 물러없어지는 무덤고 짜증나는 길고도 긴 장마 속에 축산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한 원유가 인상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위해 단결된 힘을 모아야 했던 우리들...

낙농을 하는 우리들 에게는 힘이 배로 드는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화교육에 참여차 전국에서 모인 내농이라 하는 여성낙농인들!

맘 고생 경제적 고통 다 겪었지만 그래도 환하고 건강한 예쁜 모습들에 반가웠다.

서로의 인사와 본인소개 등 처음에는 서먹했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리 친했었던지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축산경영에서부터 관리 운동교실, 메이크업, 어린송아지관리, 전환기사양관리, 세무관리 등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포유 중인 어린송아지는 물이 필요치 않은줄 알았는데 물을 출생 3일 후부터 먹여야 1위의 돌기가 자란다는 강사님의 강의에 너무도 큰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다.

이렇기에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다!

나도 25년동안 목장을 해 오면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은 했으나 교육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목장경영을 아무리 잘 한다해도 전문교육을 받으면 또 다시 정신이 새로워지며 정보가 있고 기술이 있는 법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 과정도 잠시나마 숨을 돌리며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정이었다.

다음 교육과제에는 포크댄스 과정도 추가 해서 앉아서 받는 교육이 아닌 운동장에서 움직임이 있는 강의도 있었으면 좋겠군요.

우리 여성낙농인들은 주부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경쟁력있는 여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심화교육으로 인해 여성낙농인의 힘들고 지친 마음까지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낙농인들은 책임과 의무로 곳곳이 참고 견디며 해 낸다는 성취감으로 피 땀 흘린 댓가를 통해 행복으로 보상받으며 오늘도 우리 목장을 애정으로 묵묵히, 그리고 똑똑히 지키고 있습니다.. ☺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교육

배은영 경남 고성군 정동목장



원유가격 인상 때문에 전국의 낙농인 모두가 하나 되는 요즘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며 목장 정리를 마치고 교육장으로 나서기 위해 차에 올랐다. 주변 언니들과 같이 동참 하려 했으나 다들 바쁜 일상 때문에 혼자 참석 하게 되어 조금은 안타까웠다.

이번에 원유가격 인상을 위해 애쓰신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은 나아질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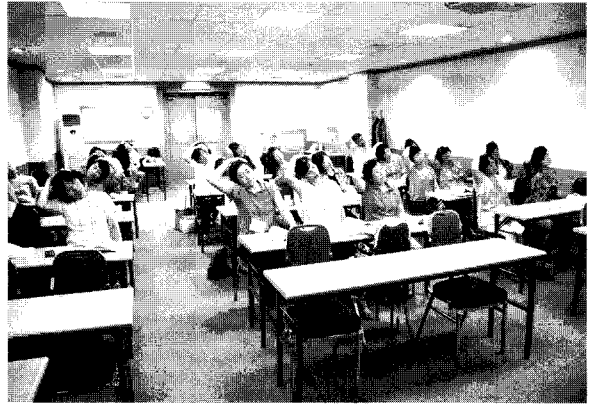
기대하며 교육장으로 가는 길은 희망으로 가득함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웠다.

오랜만에 만나는 언니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구제역의 여파가 원유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지난 겨울의 그 악몽들... 연일 방송에서 전국을 떠들썩 하게 해도 이번 원유가격인상을 놓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의 식량 자원을 책임지는 낙농인들에게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고 이는 힘들게 재기하려는 우리 교육생들에게 더없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파왔다.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희망 하나만 지니고도 오셨으리라. 이번 교육 과정에는 우리 여성 낙농인에게 꼭 필요한 메이크업 교육시간도 있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10명 밖에 할 수 없어 많이들 아쉬워 하셨지만 교육시간에는 다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보일 수가 없었던 거 같다. 맨 얼굴을 부비고 기초부터 다시 수정을 받아가면서 달라지는 얼굴들에는 일상의 고단함도, 지난 시



간의 역경들과 고난도 모두 지워져 가는 것 같아 교육생 모든 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

김동현 국가대표선수와 함께 해본 스트레칭은 그동안 굳어있던 나의 몸을 깨우는 것 같아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이어서 농장일에 바쁜 시간 중에도 나의 몸을 소중히 돌보아야 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교육은 심화교육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재검토하고 조를 나누어 경영관리 실습을 하였는데 각조마다 제 각각 다른 답들이 나와서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하여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경영비와 생산비였는데 대부분 자가노동비를 경영비로 착각을 하여 다른 답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았다.

송아지와 육성우 사양관리시간에는 유사비와 생산성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다. 육성기 때의 제대로 된 사양을 통해서 평균 산차를 늘려야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초산분만까지 소요되는 경비도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목장의 수익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착유소 관리는 항상 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발정 관찰이나 이상 유무를 잘 체크해야지만 손실을 줄여 목장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알고는 있었지만 금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목장의 전체적인 관리에 내가 너무 소홀했나 싶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초등학교 두 녀석과 소들, 그리고 유가공까지... 그동안 바쁘기만 하고 일도 잘 되질 않아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도 많았지만 송아지들이 자라서 분만을 하고 착유장에 오는걸 보면 언제 이렇게 키웠나 싶어 보람을 느낄 때 우리의 행복은 쌓여 가는 것 같다.

낙농가의 입장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분위기 좋게 능청스러운 유머도 해주시며 잘 가르쳐주신 나현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릴게요. 이번교육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꼈다. 바쁜 일상에 췌 한번 듣기가 그리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우리 목장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야 우리 목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고 잘못된 경영 방법은 언제나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목장의 경영이리라. 바쁜 일상이지만 3박 4일 간의 교육을 마치고 반가운 가족들을 보니 교육할 때 가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 남편과 아이들을 더 열심히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교육 때마다 말주변이 없어 많은 애기들을 다 못했지만 이렇게 후기를 통해 나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교육의 진행을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여성 낙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고가 되고 후배낙농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